

<http://doi.org/10.5253/kpac.2023.52.4>

화답형 가사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 연구 - 계녀 담론에 대한 대항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윤병용*

차 례

1. 서론
2. 각 작품의 내용 구성 및 전반적 성격
3. 비판에 대한 대응 양상과 그 의미
4. 화답형 가사를 통한 대항적 글쓰기
5.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화답형 가사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를 새로이 소개하면서 작품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두 가사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작품의 특징과 시가사적 의의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나부가(2)>는 게으른 여성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가사로, 기존에 알려진 동일 제명의 작품(<나부가(1)>)과의 구분을 위해 숫자를 붙여 새로 명명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부정적인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다른 계녀가들에 비해 계녀 항목이나 정치에 관한 대목 등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여자의 행실 자체를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나부가(2)>에 이어 필사된 <남자답가라>는 탄식가류 규방가사인 <장탄가>의 새로운 이본 중 하나로 확인된다. 그러나 타 이본들과 달리 <나부가(2)>의 내용과 구절들을 강하게 의식하며 여자를 향한 비판에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성적 성격을 보여준다.

원가와 답가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두 가사 중, <나부가(2)>는 부녀에 관한 문제들을 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양하게 언급하며 비난하는 데 주력하였던바, 이에 대한 <남자답가라>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된다. 첫째는 문제로 지적된 여자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 역으로 남자가 더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을 논하는 것, 둘째는 여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던 사실들을 새로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자답가라>는 계녀 주체인 남성의 윤리성을 되찾고 계녀 담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부가(2)>에서 전개되었던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식을 시사하고 있다.

시가사적 견지에서 볼 때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화답형 가사의 맥락과 맞닿아 있으나, 두 가사의 지향이 화합을 향하지 않고 원가의 비판에 답가가 맞서는 양상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화답형 가사의 흐름 중에서도 독특한 지점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남자답가라>는 나부로 지목되었던 여성 당사자의 발화가 한 작품을 구성해낼 만큼 전면화된 사례로서도 그 가치를 조명해 볼 수 있다. 이 가사는 계녀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여성의 모습이 남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왜곡된 것일 수 있음을 폭로하는 한편, 여성이 경험한 현실과 감정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바, 이는 남성이 지닌 계녀 주체로서의 권위를 심문하며 계녀 담론 자체에 균열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화답형 가사라는 양식을 경유하여 당대 계녀 담론에 대한 대항적 글쓰기가 수행된 사례라는 점에서, 시가문학사는 물론 여성문학의 지평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나부가(2), 남자답가라, 계녀가, 규방가사, 장탄가, 화답형 가사, 대항적 글쓰기, 여성의 말하기

1. 서론

본고는 두 편의 화답형 가사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를 새로이 소개하면서 작품들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두 가사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품의 특징과 시가사적 의의를 심도 있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두루마리

에 필사된 작품들로, 본고에서 처음 학계에 소개하는 자료이다. 이 중 앞서 필사된 <나부가(2)>의 실제 제명은 ‘나부가’이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동일 제명의 가사와 구분하기 위해 숫자를 붙여 명명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왕에 학계에 알려진 ‘나부가’, 즉 장서각본, 규장각본 등의 이본이 확인되며 ‘금세부인’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 작품을 <나부가(1)>로 지칭하도록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나부가(2)>는 게으른 부인[懶婦]의 형상을 통해 계녀(誡女)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방가사라는 점에서 <나부가(1)>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작품의 실체를 살펴보면 <나부가(1)>과는 상이한 내용과 구성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계열의 작품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자답가라>는 <나부가(2)>의 뒤에 수록된 가사이다. 이 작품은 일찍이 권영철에 의해 수집되었던 규방가사 <장탄가>¹⁾와 내용 구성이 흡사하여,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장탄가>의 이본임을 알 수 있다. 제명인 <남자답가라>은 ‘남자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실제 내용으로 보아 여기서 호명된 ‘남자’는 바로 앞에 수록된 <나부가(2)>의 화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원가(原歌)와 답가(答歌)의 관계로서 연결된 작품들로 읽어볼 수 있다.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그 자체로도 새로운 규방가사 자료들로서 눈길을 끌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먼저 <나부가(2)>의 경우,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나 <용부가>, <나부가(1)>과 같이 여성 인물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가사 유형과 더불어 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²⁾ 가사에서 규범을 일탈하는 여성의 모습은 계녀라는 표면적인 목적과 별개로, 작

1)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138~141쪽.

2) 가사에 재현된 부정적인 여성인물 형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제출된 바 있다: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 <용부가>·<복선화음가>·<심청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권현주, 「계녀가에 나타난 악녀의 형상과 그 특징」, 『국어교육연구』 59, 국어교육학회, 2015.

품을 생산·향유하였던 담당층의 욕망이나 위기의식 등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나태의 문제를 강조한 <나부가(1)>의 경우, 여성의 치산(治産)과 노동의 중요성이 대두된 19세기 이후의 사회적 배경 및 다양한 이본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된 바 있다.³⁾ 본고에서 다룬 <나부가(2)> 역시 나부(懶婦)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인 만큼, <나부가(1)>을 포함하여 부정적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계녀가 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자답가라>는 앞서 언급하였듯 <장탄가>의 새로운 이본에 해당하느냐, <장탄가>는 연구사 초기에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로 분류된 이래 줄곧 탄식가류의 일종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장탄가>는 ‘여자자탄가’ 중에서도 남자와의 비교의식을 통해 신세를 한탄하는 유형에 포함되거나,⁴⁾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가운데 남편과 시댁을 향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⁵⁾ 이로 미루어 본다면 <장탄가>와 이본 관계에 있는 <남자답가라> 역시 여성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탄식가류로서의 성향을 지녔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인접 작품들 및 타 이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개성적 면모를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함께 필사되어 있는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다면, 두 작품의 특징은 원가와 답가로 구성된 화답형(和答型) 가사 유형의 맥락에서도 고찰될 여지가 있다.⁶⁾ 특히 <남자답가라>의 내용 대부분이 <나

3) 김명준, 「<나부가> 연구」, 『어문연구』 46·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5; 정한기, 「가사 <나부가>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정인숙, 「<나부가>에 나타난 게으른 여성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13; 김윤희, 「가부장적 권력의 균열, 그 틈새로 드러난 여성의 목소리 - 조선 후기 가사 <나부가>(이정환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15; 윤병용, 「<나부가> 이본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9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4) 최규수, 「<여자자탄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어문연구』 4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290~292쪽.

5) 이민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분노의 성격과 남성 인식」, 『이화어문논집』 45, 이화어문학회, 2018, 17~18쪽.

부가(2)에 대한 반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요하는 지점이다.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게으른 부녀’로 지목된 인물의 솔직한 향연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정환본 <나부가(1)> 속의 한 대목이 각광받았던 바,⁷⁾ 관련하여 <남자답가라> 역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었던 여성의 목소리가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그 개성적 면모를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특징과 의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 작품들로 판단된다. 두 가사를 처음 학계에 소개하는 만큼, 본고의 2장에서는 각 작품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과 내용 구성,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3장에서는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두 작품이 원가와 답가로서 긴밀하게 관련되는 양상과 그것이 내포한 의미에 대해 분석하며, 4장에서는 작품들이 지닌 시가사적 의의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2. 각 작품의 내용 구성 및 전반적 성격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가 순서대로 필사되어 있는 두루마리는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것으로, 395×23cm 크기이며 두 가사만이 줄글체 형식으로 적혀 있다. 필체로 보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인물이 필사한 것으로

6) 화답형 가사는 완성된 작품의 형태로 주고받는 관계가 드러나면서 동일한 주제 하에 묶일 수 있는 2편 이상의 가사들로 규정될 수 있다(이상숙, 『화답형 가사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9~21쪽). 이 유형에 속한 작품으로는 <고궁가>와 <고궁답주인가>, <만인사>와 <만인사답>, <조화전가>와 <반조화전가>, <기수가> 연작 등을 들 수 있으며, 조선 후기 규방가사들에서도 그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 유형과 관련해서는 백순철, 『문답형 규방가사 창작환경의 두 층위』, 정재호 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김형태, 『대화체 가사 유형별 특성 고찰』,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이상숙, 앞의 논문 참조.

7) 정인숙, 앞의 논문; 김윤희, 앞의 논문.

보인다. 필사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의 치산 활동이 강조되는 가운데 규방가사에서 게으른 여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해본다면,⁸⁾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 및 <나부가(1)> 등이 유행하였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창작되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본 장에서는 두 작품 각각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 및 내용 구성을 검토하고,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 유형과 견주어보면서 작품의 성격을 구체화해보도록 한다.

1) <나부가(2)>의 구성과 성격

<나부가(2)>는 193구 분량의 가사이다.¹⁰⁾ 작품이 필사된 두루마리 첫 장에는 ‘나부가’라는 제명 바로 아래 부분이 손상되어 있다.¹¹⁾ 앞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나부가(2)>는 기존에 알려진 <나부가(1)>과의 구분을 위해 본고에서 숫자를 붙여 새로 명명한 것이다. 제명이나 게으른 부인의 형상 등과 같은 유

8) 18, 19세기 이후 가속화된 경향분기(京鄕分岐) 등의 조건으로 인해 향촌사족들의 경제적 처지가 열악해지면서 가문 내 여성의 치산이 증시되어 갔던 현실은 당대의 여러 시가 문학에 깊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관련하여 장정수, 「<복선화음가> 연구 — 여성형상과 치산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 관련 여성형상」,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참조.

9) <복선화음가>가 계녀 덕목 중에서도 치산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모가 여성에게 경제적 결핍의 해결을 의무화하였던 당대의 현실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이동연, 「조선후기 여성 치산과 <복선화음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91쪽). <복선화음가>는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바, 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1872년에 필사된 <규중감응편>으로 추정되고 있다(정기선,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36쪽). 게으른 여성 형상을 전전화하고 있는 <나부가(1)>의 경우도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와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될 바 있다(윤병용, 앞의 논문, 45~48쪽).

10) 대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4음보가 한 행을 구성하고 있지만, 편구(片句)로 인해 6음보가 모여 한 행이 된 구절들도 더러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작품의 길이는 행이 아닌 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1) 뒤에 수록된 <남자답가라>의 예로 미루어보면 원래 제명은 ‘나부가라’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사성으로 본다면 <나부가(1)>의 이본일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나부가(2)>는 현전하는 <나부가(1)>의 이본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구조와 전혀 다른 양상을 갖추고 있어,¹²⁾ 직접 관련된 이본이 아닌 다른 계열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의 내용은 부녀의 올바른 덕목들을 나열한 서두(1~15구)와 부녀의 부정적 성품과 행실을 상세하게 서술한 본문(16~193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결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은 작품의 시작 부분이다.

어와 분여드라 니 니 말씀 드러보소
 분여의 바른 형실 어느 일이 편할손○
 스구도 니 일ियो 봉제스도 니 일이라
 접빈직도 니 일요 어비복도 니 일이라
 침○당적 니 일ियो 엄식 칩계 니 일이라¹³⁾ <나부가(2)>

여기서 화자는 교훈 대상인 ‘부녀’를 청자로 호명하며 사구고(事舅姑),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어비복(御婢僕) 등의 직분들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항목들은 이른바 전형계녀가에서 제시되어 왔던 교훈 목록의 일부와 일치하는 것으로,¹⁴⁾ 당대에 널리 확산되었던 계녀 담론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12) <나부가(1)>의 이본은 현재 장서각본, 규장각본, 이정환본, 가사문학관본A, 가사문학관본 B의 5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 이본들은 세부 구절이나 구체적인 성격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 ①직분 수행의 당위성, ②신분에 따른 직분, ③사부부인(士夫夫人)의 직분, ④금세부인의 비행(非行), ⑤부인들에 대한 당부라는 동일한 구성을 공유하고 있다. <나부가(1)> 이본들 간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는 윤병용, 앞의 논문, 45~66쪽 참고. <나부가(1)>의 구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부가(2)>의 경우는 ③의 일부와 ④ 부분의 내용만이 확인되므로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

13) ○ 부분은 종이의 손상 등으로 인해 원문의 판독이 어렵지만, 의미상 “편할손○”은 ‘편할 손가’, “침○당적”은 ‘침선당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14) ‘전형계녀가’의 계녀 항목들은 사구고(事舅姑), 사군자(事君子), 목친척(睦親戚),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태교(胎敎), 육아(育兒), 어노비(御奴婢), 치산(治産), 출입(出入), 항심(恒心)의 11개 조목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대목이다.

이후로는 부녀의 부정적인 성품과 행실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본문이 이어져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군것질과 식탐 (16~31구)
- ② 게으름으로 인해 길쌈을 하지 않음 (32~75구)
- ③ 음식 장만을 제대로 못함 (76~91구)
- ④ 용모에만 신경을 씀 (92~111구)
- ⑤ 친정에게 시가 흉을 봄 (112~130구)
- ⑥ 접빈객에 소홀하고 아무나 불러들임 (131~153구)
- ⑦ 가사(家事)를 돌보지 않음 (154~171구)
- ⑧ 투기함 (172~179구)
- ⑨ 옳은 말에 말대꾸함 (180~189구)
- ⑩ 처벌의 필요성 (190~193구)

여기서 제시된 행실들은 서두에 나열된 전형적인 계녀 항목들에 국한되지 않고 식탐, 게으름, 음식 솜씨, 못난 외모, 잦은 험담, 미숙한 손님맞이와 가사 노동, 투기(妬忌), 말대꾸 등과 같이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악행의 내용이나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동원된 표현들 중 일부가 부정적인 여성인물이 등장하는 여타 계녀가들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는 점이다.¹⁵⁾ 이를 통해 <나부가(2)>가 당대에 유행하던 여러 계녀가들과 일정한

이우출판사, 1980, 173쪽 참조.

15) 예컨대 <나부가(2)>에서 부인이 시택 흉을 보는 부분(“흐난 풍스 소회 시모 풍스 가장 흉을 흉악히도 좁아니여”)은 “식부모 식동성의 업난 흉 잡아니기 / 동서간 동성간의 속솔속솔 이간헝기”(〈직중늑〉), “두리 안즈 흉보기와 (….) 안니 혼 말 지어내여 일가간에 이간질과”(〈복선화음가〉), “시집간지 석달만의 시집스리 심허다고 / 친정의 편지허며 식집흉을 좁아니며”(〈용부가〉) 등의 사례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나부가(2)>에서 아기가 선다고 유세하는 행동(“익이 선다 유세허고 츠얼과을 니누언니”)은 “아희 선다 유세허고 신 것 찾기 괴별이오”(〈나부가(1)>)에서도 확인되고, 옳은 말로 타이러도 굴하지 않고 대드는 장면(“후제는 그리 마스 순으로 타이르면 / 가중 혼 말 싹희 열 말 고시르고”)도 “오른 말노 책망하면 싸울 쓰시 디척허니”(〈행실교훈기라〉)나 “습습히 경계하면 못된 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창작된 작품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나부가(2)>는 각 비관 지점에 관한 서술이 매우 사소한 장면이나 행동까지 짚어낼 정도로 세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여러 항목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조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게으름과 무능함 때문에 길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② 부분의 모습으로, 작품 내에서 상당한 분량을 점하고 있기도 하다.

담뱃피만 비시리고 춘흠무량 지나다가
 찬바람이 섯듯 부면 이불 안은 어이할고
 아히드른 무시 썰고 종권식은 원망하니
 연연 묵은 솟보섬헌 농 안의 쓰어니아
 이 보면 즈아쥬소 저 보면 댁쥬소 (...)
 니 손으로 못헐거던 길숨 갑슬 어이 아리
 흥 가닥의 말노 쥬고 흥 필 쏘디 섬도 쥬고
 다 쓰즈면 손슈 세야 훗쑈 보고 더읍 쥬며
 남의 손만 전혀 밋고 여러 등을 댁흠손가 (...)
 아된 마의 슈연군즈 건넌 마의 호인군즈
 남과 갓치 가즈하니 무얼 입고 가즌말고

<나부가(2)>

위 인용문은 게으른 부녀가 담뱃대만 물고 허송세월하다가 찬바람이 부는 계절까지 이불조차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종들의 원망까지 높아지는 실정이지만, 이 부녀는 늦게라도 여공 일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면서 다른 이들에게 일을 맡기는 데 골몰하는 중이다. 길쌈 값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여 집에 있는 곡식들을 과도하게 지불하게 되니 가산은 줄어갈 수밖에 없고, 남의 손만 믿고 일을 하지 않으니 가족들은 제대로 겨울을 나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혼인이나 수연(壽宴)과 같은 마을 행사에 입고 갈 옷이 없어, 이웃들에게 아쉬

집 더욱 보여”(〈나부가(1)〉)와 흡사하게 나타난다.

운 소리를 하며 빌릴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제시되기도 한다.

게으름과 길쌈에 관한 문제 외에도 <나부가(2)>에서는 부녀의 못된 행실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사건들이 상세히 나열되는 한편, 여성의 행동이나 외모를 회화화하거나 비하하는 대목들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¹⁶⁾ 화자는 이처럼 적대적인 태도로 못된 행실들을 묘사하던 끝에, “어와 저런 덕은 방망이로 웅적이 처츄하면 조홀시고”라며 부녀를 물리적 폭력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나부가(2)>의 내용을 개괄해보면, 전체 193구 중 올바른 덕목을 나열한 15구를 제외한 178구가 전부 부녀의 부정적 행실들을 서술하는 데 할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적 편중은 규범에서 일탈한 여성이 등장하는 여타의 가사들과 구별되는 <나부가(2)>의 독특한 양상이기도 하다. 예컨대 <나부가(1)>의 경우, 부정적 인물인 ‘금세부인’의 그릇된 행실 외에도 신분에 따른 직분이나 부인의 올바른 덕목들을 제시하는 대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⁷⁾ ‘못된 부인’이 등장하는 <직중늑> 또한 어진 부인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덕목들이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¹⁸⁾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 역시 규범에서 일탈한 여성이 아니라 모범적인 여성 인물의 성공담이 상당 분량을 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¹⁹⁾

16) “여공지스 못 흐거던 엄식 중만 어이할고 (...) 흥즈치마 들너 입고 즂방머이 지비 쪼고 / 강총강총 들어달느 웅총망총 송 노호니 / 김친물은 쏘다지고 술은 어이 이젓논고 / 굶지 못 먹고 느니 싱역종이 절노 논다”라거나, “널죽갓탄 낫뻘되기 진미똥은 무슴일고 / 박죽갓튼 입수얼의 싱식피는 무슴일고 / 이마터럭 다 썩분니 돌수박니 땡송땡송 / 썩분 눈섭 다시 나니 쭈썩쭈썩 수시로다” 등의 부분에서 확인된다.

17) ‘직분수행의 당위성’과 ‘신분에 따른 직분’, ‘사부부인의 직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부가(1)> 중 장석각본의 경우 전체 216구 중 98구, 규장각본은 전체 253구 중 113구, 이정환본은 전체 309구 중 117구, 가사문학관본A는 전체 231구 중 83구, 가사문학관본B는 전체 258구 중 114구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절반 정도의 분량을 부정적인 여성 인물과 무관한 내용이 점하고 있는 셈이다. <나부가(1)>의 내용 구조에 대해서는 윤병용, 앞의 논문, 49쪽 참조.

18) <직중늑>에서 부인들의 덕목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89행에까지 해당한다. 작품에 관한 논의는 구사화·김영, 「이도희(李道熙)의 새로운 가사 작품 <직중늑>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34,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참조.

한편, <나부가(2)>는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 자체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별을 보여준다. 다른 가사들의 경우, 부정적 여성 인물에 관한 서술은 대개 시집을 오게 된 경위나 못된 행실을 자행한 끝에 비참하게 몰락하는 결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나부가(1)>에서는 금세부인이 시집을 오던 시점에 시부모가 그녀를 처음 맞이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고,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와 <용부가> 등에서는 부정적 여성이 가산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전락하는 장면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부녀의 전사(前史)나 못난 행실로 인한 후일담을 보여주면서 해당 인물의 일생 전반에 관심을 기울인 경우들에 비해, <나부가(2)>는 별도의 결말이나 후일담 없이 부녀의 특정한 행실들과 그 구체적인 후과(後果)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 미세한 국면들을 포착하여 표현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부가(2)>는 올바른 덕목을 제시하거나 부녀에 대한 징치가 이루어지는 대목 등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화자가 포착한 부녀의 부정적 행동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나부가(1)>이 ‘금세부인’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길쌈 노동을 특권화하거나 길쌈으로 유명한 옛 인물들을 나열하는 등의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하면서 계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양상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²¹⁾ 관련하여 다른 계녀가에서 흔히 “어화

19)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의 이본들은 계녀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녀형’과 계녀 부분이 간략히 다루어지고 주인공의 일생에 중점을 둔 ‘전기형’으로 대별된다(서영숙,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 — <김씨계녀스>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이 중 계녀형의 대표적인 작품인 <김씨계녀스>는 총 488구 중 긍정적 인물인 ‘나(김부인)’의 일생과 계녀 부분이 각각 180구와 124구를 점하고 있으며, 전기형의 대표적 작품인 <복선화음가>는 총 499중 긍정적 인물 이부인의 일생이 402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된 바 있다. 조해숙, 앞의 논문, 159~160쪽.

20)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인 <김씨계녀스>에는 부정적 인물인 ‘괴똥어미’가 사치를 일삼다가 꽤자망신하게 된 이후 남편, 아들, 딸까지 죽고 셋째 딸은 반신불구가 되며 자신 또한 다리를 절뚝이는 몸으로 걸식하게 되는 대목이 장황하게 서술되고 있다. <용부가>에서 역시 뺨똥어미의 아들이 흠아비가 되고 딸은 시집에서 쫓겨 오며, 뺨똥어미는 간부를 달고 달아난 끝에 관비(官婢)로 전락하게 되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1) 다음과 같은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원갓 녀뻘 구비계 못 훔진더 / 아모리 미련흔 부인인들 길삼쫓차 못 훔손가 / 천상의 직녀성은 건우 위하여 뵈을 싸고 / 수중의 교녀스람

세상 부닌덜 이 니 말슴 격언니르 / 부디 부디 경계하여 현찰부닌 되겨 하쇼”(〈나부가(1)〉)나 “가도의 흥망성쇠 녀즈의게 잇는이라 / 증즈의 효칙하여 효도가 체일리라”(〈김씨계녀사〉)와 같이 교훈을 재차 강조하는 역할의 결사가 〈나부가(2)〉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이러한 검토를 종합해 본다면 〈나부가(2)〉는 기본적으로 계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하면서도 효과적인 교화를 구심에 둔 여타의 계녀가들과 달리, 부녀의 행실들을 수집하고 세세하게 표현하는 작업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작품으로 그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2) <남자답가라>의 구성과 성격

다음으로 살펴볼 <남자답가라>는 201구 분량의 작품으로, 앞서 언급하였듯 규방가사인 <장탄가>의 이본 중 하나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이본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확인한 <장탄가>의 이본은 <장탄가>, <광사탄니라>, <광男가라>, <남자답가라>의 총 4종이다.²²⁾ 규방가사 자료집에 따르면, <장탄가>의 작가는 ‘설미택’이고 출처는 경북 월성군 산동면 양동(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이며, <광사탄니라>의 작가는 미상이고 출처는 경북 상주군 상주읍 서문동(현 경북 상주시 서문동)이다.²³⁾ 이로 보아 <장탄가>의 이본들은 주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이본들은 전체적인 구성이 유사하며 분량 역시 비슷한 정도로 파악되지만,²⁴⁾ 세부 내용의 드러남이

날〃이 피금찌니 / 이런고로 현부인도 옛적부터 길삼하니 / 신농씨 황제부인 잠농하기 시로호며 / 구후의 문왕후비 갈감장을 지어니고 / 문백의 어마님은 티우집 부인으로 / 길삼을 힘써하고 비단찌기 숭상하고 / 화원의 처부인은 지상의 인히로셔 / 빈풍칠월 조상너는 공주의상 지엇거든” <나부가(1)>

22) 이 중 본고에서 소개할 <남자답가라>를 제외하면, <장탄가>와 <광사탄니라>는 권영철 편, 앞의 책, 138~146쪽에 실려 있으며, <광男가라>는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36, 여강출판사, 1999에 1663번 작품으로 수집되어 있다.

23) 권영철 편, 앞의 책, 138쪽, 142쪽.

24) 작품 분량은 <장탄가>는 184구, <광사탄니라>는 204구, <광男가라>는 225구, 그리고 본

나타나기도 하여 텍스트의 향유 상황이나 필사자의 성향 등에 따라 유연하게 변개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탄가>의 여러 이본들 중에서도 <남자답가라>가 특별히 주목되는 까닭은 두루마리에 함께 필사된 <나부가(2)>와의 관계성 때문이다. 다른 이본들은 별도의 관련 작품 없이 개별적으로 전승되었으며, ‘장탄가’나 ‘광사탄’과 같은 제명 역시 가사의 주요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완결된 작품임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남자답가라>는 하나의 두루마리에 <나부가(2)>와 함께 필사되어 있다는 점, 제명에서 ‘답가(答歌)’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다른 이본들과 존재 방식에 있어 분명한 변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실제 작품 내용과도 연결되어 나타난다. <남자답가라>에는 선행 텍스트를 강하게 의식한 부분들이 자주 확인되는데, 이는 주로 <나부가(2)>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들여와 배치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타 이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역 압히 저르르든 너 어이 투긴허리	<남자답가라>
닌역 압히 정초허면 니라 어니 투기할고	<광사탄나라>

위의 두 구절들은 모두 자신이 못난 남자를 투기할 리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²⁵⁾ 그런데 이 중 <남자답가라>의 경우는 <나부가(2)>에서 여자의 투기를 지적한 대목인 “이역 처지 저르르든 트시난 무슴일고”를 본 따서 가져온 것으로, 다른 이본과 다르게 <나부가(2)>의 언술을 직접 겨냥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훈달 육중 날말다 소금 소리 더욱 심타	<남자답가라>
-----------------------	---------

고에서 다루는 <남자답가라>는 201구이다. 이 중 <광男가라>는 157구 이후로는 다른 이본들과 내용 구성에 있어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나, 전반적인 주제와 내용 자체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5) 해당 구절은 다른 이본인 <장탄가>나 <광男가라>에는 생략되어 있다.

한달 육장 소국에서 열불이나 더흐디요	<장탄가>
한달 육장 소금에서 열부리나 더흐면서	<광사탄나라>

이는 남자가 장날에 무단히 밖으로 나다닐 것을 생각하니 속에서 화가 나는 상태를 표현한 구절들이다. 역시 의미는 동일하지만 여기서도 <남자답가라>의 경우만 다른 이본들과 차이를 보이는바, 해당 구절은 <나부가(2)>의 화자가 게으른 부인을 향해 “한 달 육장 장날마다 소금 소리 듯기 실타”고 하였던 언급을 그대로 가져온 표현에 해당한다.

소주갑 탁주갑시 타죽 곡식 흘너거던 <u>나도</u> 역시 심화나서	<남자답가라>
소주갑세 탁주갑세 타작 곡석 다 퍼쫓니	<장탄가>
소주갑시 탁주갑시 타작 곡석 퍼니고든	<광사탄나라>

위의 구절들은 타작해 둔 곡식들을 남자가 술값으로 허비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역시 <남자답가라>에서만 “나도 역시 심화(心火)나서”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부가(2)>의 화자가 부녀에게 화를 내는 대목 (“양식업다 걱정 소리 심화난다”)을 똑같이 활용한 것이다. 특히 <남자답가라>에서의 ‘나도’는 남자가 부인을 보고 먼저 화를 낸 상황을 전제한 채 자신도 화가 났다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앞선 <나부가(2)>의 발화를 강하게 의식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남자답가라>는 앞에 필사된 <나부가(2)>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발화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향유되었을 <장탄가>의 여타 이본들과 달리, <남자답가라>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 있어 <나부가(2)>에 대한 답가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춘 특징적인 이본이라 판단된다.²⁶⁾

26) <남자답가라>를 포함하여 <장탄가> 이본들 간의 선후 관계는 별도의 방증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에 정확한 비정이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나부가(2)>의 답가로 <남자답가라>가 창작되어 함께 향유되다가 후자만

<남자답가라>의 내용은 크게 남자를 청자로 호명하는 서두(1~6구), 남자의 게으름과 추태를 제시하는 본사 전반부(7~51구)와 <나부가(2)>에서 비판한 행동에 대해 해명하는 본사 후반부(52~198구), 남자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하는 결어(199~201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고 이후 140자 가량의 후기가 적혀 있는데, 다른 이본들에는 없는 것이다.²⁷⁾ 이 후기는 “슬푸다 여즈드라”라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여자임을 한탄하는 내용으로서, 같은 처지의 여자들을 향한 언술로 되어 있어 남자를 향해 발화했던 가사의 본문과 구분된다.

가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작품의 서두에는 보고 배운 것 없는 여자와 달리 남자는 유식해서 그릇된 일을 행하는가 물으며 남자들의 무식과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여즈는 무식호여 보빈운 기 업 건이와 / 남즈난 유식호여 그른 일 이실손가”). 이에 연결된 본사의 전반부는 남자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한 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 화자는 남자가 글공부는 하지 않고 술자리와 사냥 등으로 허송세월하는 모습,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는 답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모습, 쓸모없는 일에 재물을 허비하는 모습 등을 연달아 제시하는 한편, 그렇게 지내다 무슨 글을 읽으며 어느 세월에 진사 급제를 할 것인지 물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본사의 후반부는 <나부가(2)>에서 비판받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 비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으로, 전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부가(2)>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순차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응답하였다고 보기는 어

분리되어 별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다른 이본들이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장탄가>의 이본들이 먼저 유행하는 가운데, 그 내용에 맞추어 <나부가(2)>가 앞에 추가됨으로써 <남자답가라>와 짝을 이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두 방향 모두 일정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27) 후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이호 가스 호는 벽겨신나 호 우습고 괴송할뿐 글시 더욱 괴피라 인불가 남스럽습. 슬푸다 여즈드라 이니 말습 드러보소. 우리가 여로 숨겨나서 풍운너 날인다시 곳곳마다 호터져서 호련이 생각하니 굶고 슬픈 마암 엇지 충양할고 어와 봉드라 후성의 남즈로 숨겨나서 그리든 부모 동기와 원근 친척 모다 만는 호못 즐기고 이고되서 심중 호즈서라.”

렵지만, 대체로 거의 모든 지적 사항들을 포괄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사 후반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게으름과 가사 일에 대한 응답 (52~63구)
- ② 입을 옷이 없는 것에 대한 응답 (64~71구)
- ③ 군것질과 식탐에 대한 응답 (72~90구)
- ④ 용모 지적에 대한 응답 (91~102구)
- ⑤ 시가 흉을 본다는 비난에 대한 응답 (103~116구)
- ⑥ 접빈객과 게으름에 대한 응답 (117~153구)
- ⑦ 기구한 신세에 대한 서러움 표출 (154~167구)
- ⑧ 투기 문제에 대한 응답 (168~186구)
- ⑨ 말대꾸 문제에 대한 응답 (187~198구)

여기서 화자는 <나부가(2)>의 비판에 대한 수동적인 응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각종 비행(非行)을 지적하고,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자기 행동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뒤집으려는 시도들을 보여준다. 또한 <나부가(2)>에서 여자의 외모를 비하한 것에 대해 백옥 같던 얼굴이 이처럼 외꽃같이 노랗게 된 것은 ‘모진 양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 받아치는 식으로, 여자에 대한 비판이 사실 남자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거나 부당한 것임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처럼 <남자답가라>의 화자는 <나부가(2)>의 비판 대상인 여성의 위치로 들어가 그녀에게 가해진 비난과 부당한 일들을 일일이 드러내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더중지 쇼중지의 초당 도벽 황홀한단
 말은 쇠뿔 진 쇠뿔의 안방 시벽 휴악한다
 화문석의 초당 즈리 농난한다
 명석더기 써적써기 안방 즈리 기괴한다
 가난 길삼 즈로 혀여 절복 유럽 혀여두고
 굴근 쌀 스라니여 죠석 진지 청염터이

절은 거동 불작시면 흐든 공이 바이 업다

<남자답가라>

남자가 자신의 별채인 초당은 장지 바른 벽에 화문석을 들여놓아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정작 부인과 함께하는 안방은 쇠똥으로 벽을 칠하고 명석과 거적때기로 자리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 이러한 푸대접 속에서도 나름대로 길쌈을 열심히 해 옷도 만들어 두고 아끼면서 살아가려 하지만, 남자의 ‘저런 거동’을 보면 공들여 생활을 꾸려갈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화자의 솔직한 심경이다. 점차 누적된 설움은 결국 작품의 결말부에서 죽었다가 다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한탄의 방식으로 표출되기에 이른다(“부연이 니 신명 아조 죽어 남즈 되어이서 고치히기 원이로다”).

위의 내용에 착목한다면 <남자답가라>는 남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는 탄식가류 규방가사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여자자탄가(女子自嘆歌)’로 포괄되는 규방가사 작품들 중, 여성 화자가 남자와의 비교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한탄강화형’ 작품군의 양상을 참고해 볼 수 있다.²⁸⁾ 실제로 해당 유형에 속한 작품들에서는 남자의 허튼 행실을 비판하는 대목들에 있어 <남자답가라>와 중복되는 면이 확인되기도 한다.²⁹⁾ 그렇다면 <여자탄식가>나 <여자가라>와 같은 한탄강화형 규방가사 작품들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환경 속에서 <남자답가라>가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남자답가라>는 한탄강화형의 전형적인 양상과 몇 가지 지점에

28) 최규수는 <여자자탄가>로 포괄되는 작품군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던바, 첫째는 여자의 일생에서 다룬 범한 기본 항목들을 나열하는 ‘기본형’, 둘째는 남자와의 비교의식을 토대로 신세한탄을 강화하는 ‘한탄강화형’, 셋째는 신세한탄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는 ‘극복시도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답가라>와 이본 관계에 있는 <장탄가>를 두 번째 유형에 귀속시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최규수, 앞의 논문, 290~297쪽.

29) 예를 들어 <여자탄식가>의 다음 대목에서는 <남자답가라>의 본사 전반부의 내용과 유사한 전개가 확인된다. “몇푸는치 안된남자 가소롭고 갓잔터라 (….) 이팔청춘 절문 씨에 허도세월 무삼 일고 / 곱방썩을 엽히끼고 이집 저집 당기면서 / 서당방에 낮잠 즙고 차작 밧기 일슈호고 / 놀기만 힘을 써고 남자형세 그르호고 / 여자 형실 흉을 보니 야속호고 가련히라” <여자탄식가>

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탄강화형에 속한 작품들이 신세한탄을 강화하는 만큼 계녀와 교혼적 규범에 대한 경도를 보여준 것과 달리,³⁰⁾ <남자답가라>에는 부덕(婦德)을 닦아야겠다는 다짐이나 여자로서의 운명에 순응해야한다는 의식 등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한탄강화형의 작품들이 남자의 행실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독백이나 같은 처지의 여자들을 향한 언술이었던 데 비해, <남자답가라>의 발화는 그 청자가 남자, 정확히는 <나부가(2)>에서 여자를 비판했던 인물로 상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확인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한탄강화형 작품들이 남자에 대한 비난과 여자로 태어난 데 대한 탄식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교혼적 내용 등을 두루 갖춘 데 반해, <남자답가라>는 여자에게 가해진 부당한 비판을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지향 상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상에서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의 서지 사항과 내용 구성,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이 각각 부정적 여성 인물을 비판하는 계녀가로서의 성격,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을 한탄하는 탄식가로서의 성격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상에 있어 <나부가(2)>는 계녀 항목이나 부정적 행실에 대한 정치 등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부재한바, 교혼적 목적 하에 작품을 완결시키기보다는 부녀의 부정적인 행실들을 세세하게 제시하는 데 초점이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남자답가라>는 <장탄가>의 다른 이본들이나 한탄강화형 규방가사 작품들과 달리, <나부가(2)>와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여성을 향한 비판에의 대응에 중점을 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개별적으로도 충분한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특징과 의미는 두 작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 위에서 분석될 때 보다 정치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고찰해보도록 한다.

30) 최규수, 앞의 논문, 301~302쪽.

3. 비판에 대한 대응 양상과 그 의미

본 장에서는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가 연계된 지점들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나부가(2)>에서 전개된 비판에 대해 <남자답가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작품의 특징적 면모를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원가와 답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부가(2)>에 대한 <남자답가라>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첫 번째 방식은 <나부가(2)>에서 제기된 부녀의 못된 성품이나 행실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남자 측이 더욱 비판받아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부가(2)>에서 가장 강도 높게 비난받은 여성의 성품이 ‘게으름’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폈듯, <나부가(2)>에서 부녀의 나태는 그 자체로 부덕할 뿐 아니라 길쌈 값으로 곡식을 소비하여 손해를 입히는 등 생계와 연루된 여러 문제들을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남자답가라>의 응답은, 오히려 남자의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칠팔 세예 글을 비와 소연등과 혼은 후의
 슈령방빅 훌이스기 부모가 바르던니
 능정흐기 그지업고 계이리기 흐이업서
 읍집 초당 뒤집 초당 튀전이야 바독이야
 느가면 탁주 순형 드러오면 낫줍 짓기
 그렇저렇 지니다가 무슨 글을 흥단말고 (...)
 음식전 황아전을 기웃기웃 단니다가
 중중의 드러가 글제가 무어신고
 써적만 쥬엇뜻고 빈독을 쓸거니어 (...)
 불괴럽슨 헛지물을 어디다가 여헛는고
 바느리는 스오지 춤비시는 스오지

<남자답가라>

위 인용문은 <남자답가라>의 본사 전반부에 해당한다. 부모는 남자가 소년 등과 하여 수령방백이 되길 바라나, 남자는 게으름이 한이 없어 투전과 바둑에만 빠져 있고, 음주와 사냥, 낮잠만을 일삼으니 언제 글을 읽을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성이 이리하니 집에서 옷과 양식을 마련해주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도 여러 가게나 기웃거리기 일쑤이며, 글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헛되이 재물만 쓰고 돌아올 따름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바늘이나 참빗이라도 사오는 게 낫겠다는 마지막 구절은 남자의 행동들이 그만큼 가치마저 없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다. 이로써 <남자답가라>의 화자는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거 시험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한 채 투전 등으로 재물을 탕진한다는 점에서, 남자의 게으름이야말로 여자의 게으름보다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상대의 결함을 꼬집어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녀를 비판하며 계도하려 하였던 남자의 윤리적 권위 내지 교화 주체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남자답가라>의 태도는 “어와 남즈드라 여즈을 옷지 마소”라는 작품의 서두와도 관련지어 읽어 볼 수 있다. 해당 구절은 부녀의 덕목을 착실히 수행해야한다고 훈계하는 <나부가(2)>의 화자를 윤리적 권위를 갖춘 존재가 아니라 ‘여자’와 동등한 ‘남자’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나부가(2)>의 내용들을 가치 있는 교훈이 아닌 여자를 ‘비웃는 말’로서 규정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첫 구절에서부터 <남자답가라>는 <나부가(2)>의 화자를 교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던 셈인데, 여기에는 남자가 그 자신의 문제로 인해 여자의 행실을 비난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부가(2)>에 대한 <남자답가라>의 두 번째 대응 방식은 부녀의 행실에 관한 비난의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그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역 처지 저르커든 트시난 무슴일고

이웃 연과 말을 하면 으심혀여 쓴느고
방미 오면 썩을 니여 말도 혼 변 아이 하니
절헌 거동 불작시면 싸흠 썰 날 잇살손가

<나부가(2)>

절은 거동 불작시면 흐든 공이 바이 업다
이역 압히 저르크든 니 어이 투긴히리
말을 연과 말을 하면 우습 써거 말을 호고
이웃집의 놀노 가면 밤중만의 들어오니
타알바신 오성 기싱 돌 과거 핑계호고
식주인을 가려두고 은가락직 우가락지
모란 땡기 공단 땡기 무슨 정 그득호고

<남자답가라>

위 인용문은 투기(妬忌)의 문제를 언급한 부분에 해당한다. <나부가(2)>에 서 화자는 남자가 이웃 여자와 말을 하면 의심부터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성질을 내면서 말도 하지 않는 부녀의 모습을 비난하며, 저런 거동을 보면 싸움 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남자답가라>의 화자는 남자의 못난 거동들을 보면서 지내왔는데 어찌 투기를 하겠느냐면서 부녀를 향한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절은 거동 불작시면”이나 “이역 압히 저르크든”과 같은 표현은 <나부가(2)>에도 있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화자가 <나부가(2)>의 어느 지점과 맞서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여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진 부분에서는 <나부가(2)>의 “썩을 니여”, “싸흠 썰 날 잇살손가”에 대한 응답으로서 투기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니 어이 투긴히리”) 남자와 다투었던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남자는 이웃 여자와 굳이 웃음을 섞어가며 말을 하고, 이웃집에 놀러 가면 밤이 되어서야 들어오며, 기생과 주막 주인에게 쓸데없이 가락지와 땡기를 선물하는 인물이다. <나부가(2)>에서는 여자가 화를 내는 모습을 여자 자신의 투기하는 마음 때문으로 치

부해버렸으나, 사실은 남편의 못난 행동들 때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부녀를 향한 <나부가(2)>의 비난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것이었음을 밝혀내는 대목들은 <남자답가라>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계으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다.

익이 선다 유세하고 츠열과을 니누언니
 아히 운다 핑기하고 어줍존의 누어 즈니 (...)
 아된 마의 슈연군즈 건넌 마의 호인군즈
 남과 갖치 가즈흐니 무얼 입고 가즌말고
 압집의 가 치마 벌고 뒷집의 가 버선 비어
 언난 스람 지빈하고 슈난 스람 나싱넌다 <나부가(2)>

악이 선다 뉴세한들 톱박 즈반 스먹인가
 아히 운다 핑겨흐면 기림 업서 누어 좃소 (...)
 바리바리 시러운 옷 노부 입고 남티 입고
 혼 가지가 나문 거설 시모임게 드립옵니
 호인군즈 슈연군즈 이복을낭 고스하고
 감투 업시 가단 말가 신은 어이 벗겄난고 <남자답가라>

<나부가(2)>에서 부인은 아기가 선다고 유세하며 온갖 과일들을 찾아 먹고, 아이가 운다고 핑계를 대며 자기 일을 제쳐둔 채 어쭙잖게 누워 자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부가(2)>의 화자는 자신이 다른 마을 사람들과 같이 마을 행사를 가려 해도 입을 옷이 없고 부인 역시 앞집 뒷집에서 옷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여자의 나태로 인해 길쌈을 제때 하지 못하여 생긴 결과로 설명된다.

그런데 <남자답가라>에서는 <나부가(2)>와 상이한 입장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자가 아무리 아기를 가졌다며 유세를 해도 남자는 토막 자반 하나 사 먹인 적이 없었으며, 아이가 운다고 말을 해봤자 도와주기는

커녕 기력이 없다며 누워 자버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특히 해당 구절의 앞뒤에는 여자가 옷 짓기와 제사, 농사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언급이 덧붙여 있는데,³¹⁾ 이에 더해 육아까지 해내기란 상당히 고달픈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잠시 쉬는 것을 가지고 과도한 비난을 가했던 셈이다. 집에 옷이 없는 까닭 역시 <남자답가라>에서 새로이 밝혀지는데, 그것은 여자가 친정에서 실어온 옷을 모두 시댁 식구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부가(2)>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실, 즉 넉넉지 않은 시댁의 경제적 조건 속에도 입을 옷을 장만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부녀의 사정이 새롭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나부가(2)>에서의 비난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밝혀내는 방식은 길쌈을 문제삼은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아모 일도 못하면서 연중 타선 무슴 일고
 활끈 쏘라 비틀 곤쳐 물의 곤쳐
 곤치기도 지변하다 나무리기 지려하다 <나부가(2)>

물너 동줄 곤치라면 가움 엷다 핑기하고
 그만거살 슬허하여 일 지축만 별노 하니
 마른 도릭 진 도릭의 밤낫 엽시 그러다가 (...)
 흔 나잘만 누어서면 불상탄 말 안이 하고
 문 닷치고 도라 서서 놉푼 소리 더욱 분타 <남자답가라>

<나부가(2)>에서 지적하는 것은 여자가 애초에 길쌈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연장 닷만 하는 모습이다. 길쌈 도구인 물레와 베틀이 고장이 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자꾸 고장을 내니 매번 고치는 일이나 나무라는 일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답가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인이 제대로

31) “줄 입피고 못 입피는 니 손으로 하여 입고 (...) 제춘 느낌 갈여니만 어느 제스 켈스하며 / 중즌 보리 후버니어 어느 밧철 묵혀던고.” <남자답가라>

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물레 동줄이 고장 나도 남편이 재료가 없다는 핑계로 고쳐주질 않았기 때문이다. 부인으로서는 이처럼 간단한 부탁도 귀찮아하면서 자신에게 일 재촉만 거듭하며, 밤새 일을 하다 잠시 쉴 때조차 불쌍하단 말은 없이 화만 내는 남편의 모습이 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로 보면 <나부가(2)>에서의 부정적인 여성 형상은 여성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상과 전혀 다르거나 편향된 시선에 의해 구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례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그에 따른 해석이 규범과 무관한 사소한 행위에까지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초당의 혼즈 잘 써 가장싸라 나오기난
무슴 닐노 나와뉘고 즈고 나니 우슴도다 <나부가(2)>

초당의 혼즈 잘 써 꺄말 업시 느가뉘가
안 느가면 증을 니고 즈고 나면 훙을 보니 <남자답가라>

<나부가(2)>의 화자는 혼자 초당에 가고자 할 때 따라 나오는 부인의 행태를 비웃고 있다. 남편을 따라 나서는 행동 자체는 비난받을 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인용된 구절 앞에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대목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³²⁾ 부인을 ‘우슴다’고 표현한 데에는 추한 용모를 지녔음에도 남편과 잠자리에 들고자 하는 욕망에의 조롱이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남자답가라>에 따르면, 부인이 초당으로 남편을 따라 나선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혼자 자리 나갈 때마다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 나서지 않으면 화를 내고 따라 나오면 훙을 보는 상황이니, 부인으로서의 난감하고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나부가(2)>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남자답가라>의 해명을 통해 여성을 향한 비난이

32) “널죽 갓탄 닛뻬뉘기 진미쑹은 무슴 일고 / 박죽 갓튼 입수얼이 성셔피는 무슴 일고 / 이 마터럭 다 썩분니 돌수박니 밍송밍송 / 썩분 눈섭 다시 나니 쑤쑤쑤 수시로다.” <나부가(2)>

부당한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된다. 이처럼 <남자답가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건의 재구성 과정은 교화의 주체로서 남자의 말화에 실려 있던 권위와 무게감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나부가(2)>에 대한 <남자답가라>의 대응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자보다 남자가 더욱 비판받아야 함을 역으로 지적하는 방식, 그리고 앞서 비난 받은 여자의 부정적인 행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이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밝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남자답가라>에는 이러한 두 방식이 별개로 구사된 경우만이 아니라 함께 활용되면서 여성의 입장이 나 억울한 심경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어 주목을 요한다.

이웃 분여 마조 안즈 귀이 디고 소군소군
 허난 공스 소회 시모 공스 가장 흥을
 흥악히도 좁아니여 친정 중 온다하면
 송방의 열년 가서 우람이야 눈물이야
 존스설을 무슴 일고 초당의 연감 열고
 가중의 필떡 니여 편지을 고기죄고
 곰방 글시 더되신이 안부도 흐듯마듯 서런 진정 뿐이로다
 저긋 달느 이곳 달느 쏘시만시 씨노호이
 안진 부모 어이 알고 시가 흥만 절노 논다

<나부가(2)>

이웃 분여 마췌 안즈 시모 공스 뉘허던고
 즌인증모 업난 흥을 야종야족 보왔다가
 늡 좇츠 그리이라 흥악기도 즌바니고
 친정기별 그리다가 오련만의 니 좇 만나
 부모 동성 싱각호고 눈물 췍기 고이 هنگ
 시가 형시 오작호고 친정 지물 달나 흥긋
 바리바리 실어와도 준단 말언 안이호고

<남자답가라>

타인의 흥을 보는 행실을 다룬 부분이다. <나부가(2)>에서는 부인이 이웃과

마주 앉아 시모와 남편 흥을 흉악하게 잡아내는 것도 모자라, 친정에서 온 중에게 눈물바람과 함께 시택 흥을 쏟아내는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부인이 남편의 필묵을 가져다가 친정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 가운데, 글씨를 더디게 쓴다는 점이나 안부도 제대로 여쭙지 않은 채 이것저것 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짚어냄으로써 부인의 무식과 무례를 세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남자답가라>의 화자는 자신이 이웃에게 시택 흥을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자 쪽이야말로 장인장모의 없는 흥을 집요하고도 흉악하게 퍼뜨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비난이 거짓에 기반한 것임을 역설하는 동시에, 흥을 보는 성품은 오히려 남자 쪽이 더욱 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자답가라>의 “흉악기도 즈바니고”와 같은 구절은 <나부가(2)>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나부가(2)>에서 비난했던 부인의 잘못이 사실은 남자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부녀가 친정의 종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 <남자답가라>의 화자는 남자가 언급한 것처럼 종을 만나 눈물을 흘린 것은 맞지만, 그것은 시택 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정의 소식을 그리워하던 차에 종을 만나 부모 동생이 생각났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울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왜 울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눈물의 의미를 재맥락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지상정에 의한 것이므로 <나부가(2)>의 화자가 “우람이야 눈물이야 / 존스설을 무슨 일고”라 했던 것처럼 비하될 만한 일이 아니다. 또한 친정에 재물을 요청한 것 역시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가의 곤궁이 심각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부인이 그렇게 친정의 재물을 많이 가져와도 이를 받은 남편 쪽에서는 되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부인으로서 친정의 재물로 시가에 도움을 주고도 비난을 받는 억울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식탐의 문제를 다룬 다음 사례 역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대응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쥬야의 혼즈 드러 군동제만 혼단 말가 (...)
저 밥이라 누름기의 물직기 치와니니 물비로다
맛보노라 먼저 먹고 되공 모와 니종 먹고
고리 쓸거 마이 먹고 먹으면 솟티 잇다 입치리만 쥬순호고 <나부가(2)>

혼즈 드러 군동제 어느 디의 보왔던고
된밥 업시 비빔밥의 된 밥 업서 물 마랏소
맛보고 비 부울가 되공 밥이 실기업다
빈 고리에 불 붓치소 밧솟 쓸거 기 쥬엇소
느느드느 즐먹기야 남정밧지 또 인난가
서당 뒷히 지궁 뒷히 도토서리 청어서리
노푼 그그남 툃 고우니 밧술 보니 흙시럽다
독이거니 밧건이 팔 비좁기 즐 즈신다 <남자답가라>

<나부가(2)>에서 남자의 시선에 포착된 부인은 부엌에 혼자 들어가 밤낮으로 군것질을 하고, 몰래 누룽지를 해먹으며, 맛본다는 핑계로 먼저 먹고, 남은 밥(대궁)을 모아 나중에 먹기도 하는 등, 게걸스럽게 음식을 탐하는 모습이다. 이는 부인이 음식 장만도 제대로 못한다는 이후의 비난(“여공지스 못 흐거던 엄식 중만 어이할고 / 밥을 흐면 죽이 되고 죽을 쏘면 밥이 되어 / 쏘린 중의 국 찌리고 쏘랑 중의 치 밍우니”)과 연결되어, 하는 일 없이 양식만 축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더욱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남자답가라>의 화자는 자신이 혼자 들어와 군것질하는 것을 언제 보았는지 물으며, 남자의 비난이 근거 없는 거짓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맨밥이 없어 여러 가지를 비벼 먹기도 하고, 남은 된밥이 없어 물을 말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허기지는 것이 당연한데, 음식을 먼저 조금 맛보거나 잔반을 취한 일을 가지고

어찌 식탐을 부렸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빈 고리와 밥술을 언급한 데에서 짐작되듯, 이 집안에는 곡식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자답가라>의 화자는 이 사실을 언급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처럼 빈한한 집안의 처지와 상관없이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잘 먹고 다니며 식탐을 부리는 것은 여자가 아닌 ‘남정네’뿐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남자는 서당이나 재궁(齋宮)과 같은 곳을 쫓다니며 먹거리를 찾아내기도 하고, 높은 그릇에 흥스러울 정도로 큰 밥술을 가지고 다니면서 죽이든 밥이든 가리지 않고 먹어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를 통해 식탐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사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상, 본 장에서는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의 특정 대목들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가운데 <남자답가라>에서 <나부가(2)>의 비판에 대응하는 면모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세부적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제시되었던 여자의 성품이나 행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남자 측이 더욱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남자답가라>는 <나부가(2)>에서 여성을 비판하며 계도하고자 하였던 남성의 윤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화주체로서의 권위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둘째, 여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던 사실들을 새로이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나부가(2)>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부녀의 모습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설령 비난 받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나부가(2)>에서 전개되었던 비판의 진실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은 작품 내에서 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복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남자답가라>는 <나부가(2)>의 비판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식을 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비판, 나아가 이를 통해 구성된 계녀 담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식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원가와 답가의 관계로 연결된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의 시가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해 논해보도록 한다.

4. 화답형 가사를 통한 대항적 글쓰기

상대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구성된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시가사적 견지에서 볼 때 화답형 가사의 맥락에서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2편 이상의 가사가 대화적 관계로서 연계된 형태의 화답형 가사는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 <만언사>와 <만언사답>, <조화전가>와 <반조화전가>, <기수가> 연작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남성의 발화에 대해 여성이 반박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특히 <조화전가> 및 <반조화전가>의 양상과 맞닿아 있다고 여겨진다.

<조화전가>와 <반조화전가>는 1746년 경북 봉화군에서 창작된 작품들로, 전자는 흥원장이라는 인물이 여자들의 화전놀이를 조롱하는 내용이며 후자는 그에 반박하고 남자들을 역으로 조롱하기 위하여 안동 권씨가 지은 가사이다.³³⁾ 내용상 두 작품은 매 단락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같은 상황에 대한 대조적 논지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³⁴⁾ 그런데 이와 같은 양상은 시기상으로는 후대이지만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바, <조화전가>·<반조화전가>와 같은 화답형 가사들의 유통과

33)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0.

34) 박경주, 「반/조 화전가 계열 가사에 대한 고찰 :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주목하여」, 『국문학연구』 3, 국문학회, 1999, 258~263쪽. 이 논문에 따르면 <조화전가>에서 남자가 여자들의 화전놀이 준비과정에 대해 유치한 것으로 묘사하며 조롱하는 단락은 <반조화전가>에서 평상시 여자 행실에 힘쓰다가 때를 만나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여성의 모습을 매우 짐작케 그려내는 단락과 대응한다. 또한, <조화전가>에서 광풍이 종일 불어 엉망이 된 화전놀이 현장을 조롱하는 단락은 <반조화전가>에서 비온 뒤의 봄 풍경에서 이치를 터득하는 사대부 여성의 흥취를 묘사한 단락과 대응하고 있다.

확산이 이후의 창작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지향점에 있어 <조화전가>·<반조화전가>는 <나부가(2)>·<남자답가라>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표면상에 드러난 대립적 구도와 달리 <조화전가>·<반조화전가>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조롱과 비난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전가>에서 여자에 대한 은근한 부러움을 내비친다거나 <반조화전가>에서 가부장제에 기초한 규범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등, 화해의 여지를 분명하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³⁵⁾ 이로써 <조화전가>와 <반조화전가>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암묵적으로 허락된 놀이 형태의 조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속한 가문의 화합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리고 이처럼 논쟁적 양상을 보이면서도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초점을 두는 양상은 화답형 가사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³⁷⁾

반면, 부녀의 행실들을 조목조목 비난하고 있는 <나부가(2)>와 이에 대한 반박과 해명에 집중하는 <남자답가라>의 모습은 두 작품 사이에서 형성된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화전가> 및 <반조화전가>와 상이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나부가(2)>에서 전개되었던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비판에 대하여, 여성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맞서려는 분명한 의도 하에 <남자답가라>가 창작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였던 화답형 가사의 일반적인 경로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화답형 가사의 흐름 중에서도 독특한 지점에 놓여 있는 작품들로 이해해 볼 수 있다.

35) 실제로 『잡록』에 수록된 안동 권씨의 기록에 따르면 두 작품을 서로 주고받은 뒤 남성 측에서 먼저 <조화전가>의 내용을 온건하게 고쳤으며, 이를 보고 <반조화전가>도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갈등이 비화된 것이 아니라 화해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원주, 앞의 논문, 46~47쪽.

36) 박경주, 「규방가사가 지닌 소통과 화합의 문학으로서의 특성 고찰」, 『어문학』 119, 한국어문학회, 2013, 155~157쪽.

37) 이상숙, 앞의 논문, 83~102쪽.

한편 계녀의 주체에 의해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었던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나부가(2)>에 이어진 <남자답가라>의 성격은 <나부가(1)>의 이본 중에서도 이정환본의 예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정환본 <나부가(1)>에는 사대부가의 부인이 지켜야 할 덕목과 게으른 여성의 못된 행실이 나열되는 가운데, 작품 내내 ‘나부’로 지목되었던 금세부인의 독백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 각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군소리’라 지칭된 해당 대목에서,³⁸⁾ 금세부인은 부모 슬하에서 곱게 자라 시집을 왔는데 시댁의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다 길쌈과 농사, 제사상과 손님상 차리기 등 여태 해본 적 없는 각종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다.

<남자답가라> 역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여성의 목소리가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이정환본 <나부가(1)>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부과된 과도한 노동과 책임에 대한 현실적인 항변’³⁹⁾을 드러낸 텍스트로서의 의의가 포착된다. 그렇지만 두 작품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발화에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확인되기도 한다. 우선 이정환본 <나부가(1)>에서 금세부인의 말은 전체 작품 내에서 부분적으로 삽입되었던 반면, <남자답가라>를 통해 구현된 부인의 말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가사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는 금세부인이 혼자 앉아 하는 ‘군소리’로서 청자가 없는 독백적 성격을 지녔다면, 후자의 경우는 여자를 비판하였던 남자를 청자로 정확히 지목함으로써 직접적인 발화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정환본 <나부가(1)> 속 금세부인의 발화는 여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결을 달리하였다고 해도 구성상 전체 작품의 일부로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우나 시선, 그로

38) “일즉 즈기 염체 읍서 햇불 켜고 밤시니고 / 약간 것 할라 하며 혼져 안져 군소리로든 / 부모 실하 고히 즈라 시집니르 와닛더니 / 별닐도 든 식니고 별겨정도 든 듯겜네 / 절구씩도 몰르더니 되들방은 씨으라네 / 뽕남무 심어 늦고 누에치기 무슴 닛고 / 모시습기 무명난니 안니 호면 흘벗던가 / 도지 득죽 만드던니 농스죇춘 힘쓰던고 / 어닌 제스 글니 즈져 달마드 쉼 틈 읍넨 / 어닌 손넨 차져 와서 상찰니기 괴롭도다.” <나부가(1)>(이정환본)

39) 정인숙, 앞의 논문, 198쪽; 김윤희, 앞의 논문, 280쪽.

인한 감정 등을 거론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남자답가라>는 계녀의 의도를 앞세운 <나부가(2)>에 맞서 작품 일부를 변개하거나 몇몇 구절을 투입시킨 것이 아니라 한 편의 가사로 화답하여 대응한 결과인바, 이와 같은 본격적인 창작 작업을 기반으로 부당한 평가를 반박하는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수준 역시 심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나부가(2)>와 연계된 <남자답가라>는 나부로 지목되었던 여성의 솔직한 항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금세부인의 발화가 삽입된 이정환본 <나부가(1)>과 겹쳐지는 면이 있지만, 여성 당사자의 발화가 한 작품을 구성해낼 만큼 전면화된 사례로서 그 독자적인 가치를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자답가라>의 원가에 해당하는 <나부가(2)>에 나타난 비판의 양상을 되짚어 본다면, 작품의 의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나부가(2)>는 부녀의 부정적인 성품과 행실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묘사하는 데 주력한 작품이다. 그런데 2장에서 언급하였듯, 여기서 나타난 여자의 행동과 이를 기술한 표현들 중 일부는 <용부가>나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와 같이 당대에 유행하던 계녀가들에서 유사하게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당대에 계녀 담론을 주도하면서 가사를 창작했던 담당층에게 부정적인 여성의 전형적 형상이 공유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부가(2)>에서 묘사된 부녀의 형상과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당대 계녀 담론의 자장 내에서 형성된 여성에 대한 인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나부가(2)>의 비판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한 <남자답가라>의 의미는 단순히 <나부가(2)> 한 편에 대한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여성 형상을 구축하여 계녀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가사들, 그리고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계녀 담론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으로 확장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나부가(2)>에 이어진 <남자답가라>의 창작은 계녀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여성의 모습이 남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왜곡된 것일 수 있음을 폭로하는 한편, 여성이 경험

한 현실과 감정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던바, 이는 남성이 지닌 계녀 주체로서의 권위를 심문하며 계녀 담론 자체에 균열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두 작품은 화답형 가사라는 양식을 경유하여 당대 계녀 담론에 대한 대항적 글쓰기가 수행된 사례라는 점에서, 시가 문학사와 여성 문학의 지평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화답형 가사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를 학계에 소개하는 연구로서 작품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이 지닌 의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작품의 내용 구성과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살폈다. <나부가(2)>는 게으른 부인의 형상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가사로, ‘금세부인’이 등장하는 기존의 <나부가(1)>과는 별개의 작품에 해당한다. 내용상 부정적인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다른 계녀가들에 비해 계녀 항목이나 징치에 관한 대목 등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여자의 부정적 행실 자체를 세세하게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필사되어 있는 <남자답가라>는 <나부가(2)>의 답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가사는 탄식가류 규방가사인 <장탄가>의 새로운 이본 중 하나이지만, 앞에 필사된 <나부가(2)>의 내용과 구절들을 강하게 의식하며 여자를 향한 비판에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본들과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가 원가와 답가의 관계로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부가(2)>는 부녀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하게 언급하며 비난하는 데 주력하였던바, 이에 대한

<남자답가라>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문제로 지적된 여자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 역으로 남자가 더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을 논하는 것, 둘째는 여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던 사실들을 새로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자답가라>는 계녀 주체인 남성의 윤리성과 계녀 담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부가(2)>의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식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가사의 시가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2편 이상의 가사가 대화적 관계로서 연결된 화답형 가사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두 가사의 내용이 화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가의 비판에 답가가 맞서는 양상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화답형 가사의 흐름 중에서도 독특한 지점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남자답가라>는 나부로 지목되었던 여성 당사자의 발화가 한 작품을 구성해낼 만큼 전면화된 사례로서도 그 가치를 조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작품은 계녀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여성의 모습이 남성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왜곡된 것일 수 있음을 폭로하는 한편, 여성이 경험한 현실과 감정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남성이 지닌 계녀 주체로서의 권위를 심문하며 계녀 담론 자체에 균열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는 화답형 가사라는 양식을 경유하여 당대 계녀 담론에 대한 대항적 글쓰기가 수행된 사례라는 점에서, 시가문학사는 물론 여성 문학의 지평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나부가(2)>와 <남자답가라>를 처음 소개하며 작품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두 작품이 지닌 독특한 의미와 연계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다면,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을 생산하였던 화답형 가사의 전개 과정과 계보를 보다 정치하게 밝혀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나부가(2)>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남자답가라>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36, 여강출판사, 1999.

2. 논문

구사회·김영, 「이도희(李道熙)의 새로운 가사 작품 <직중녹>에 대하여」, 『한국
시가문화연구』 34,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UCI : G704-001062.2014..34.010)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권현주, 「계녀가에 나타난 악녀의 형상과 그 특징」, 『국어교육연구』 59, 국어교
육학회, 2015.

(UCI : G704-002038.2015..59.005)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 <용부가>·<복선화음가>·
<심청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
전연구학회, 2009.

(UCI : G704-001831.2009.0.19.004)

김명준, 「<나부가> 연구」, 『어문연구』 46·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5.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 관련 여성형상」,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
전문학회, 2007.

(UCI : G704-000294.2007..31.014)

김윤희, 「가부장적 권력의 균열, 그 틈새로 드러난 여성의 목소리 — 조선후기
가사 <나부가>(이정환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
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15.

(UCI : G704-001541.2015..31.010)

김형태, 「대화체 가사 유형별 특성 고찰」,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박경주, 「반/조 화전가 계열 가사에 대한 고찰 :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 인식에 주목하여, 『국문학연구』 3, 국문학회, 1999.
- _____, 「규방가사가 지닌 소통과 화합의 문학으로서의 특성 고찰」, 『어문학』 119, 한국어문학회, 2013.
(UCI : G704-000112.2013..119.009)
- 백순철, 「문답형 규방가사 창작환경의 두 층위」, 정재호 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서영숙,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 — <김씨계녀스>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 윤병용, 「<나부가> 이본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9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DOI : 10.18399/actako.2023..91.002)
- 이동연, 「조선후기 여성 치산과 <복선화음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 이민규, 「규방가사에 나타난 분노의 성격과 남성 인식」, 『이화어문논집』 45, 이화어문학회, 2018.
(DOI : 10.29190/JEKLL.2018.45.5)
- 이상숙, 「화답형 가사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0.
- 장정수, 「<복선화음가> 연구 — 여성형상과 치산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 정기선,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정인숙, 「<나부가>에 나타난 게으른 여성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13.
(UCI : G704-001541.2013..26.007)
- 정한기, 「가사 <나부가>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UCI : G704-000452.2006.34.1.012)
- 조혜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UCI : G704-001747.2007.15.15.001)

최규수, 「<여자자탄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어문연구』 43(2),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2015.

(UCI : G704-000452.2015.43.2.013)

| Abstract |

A Study on *Nabuga(2)* and *Namjadapgara*

Yoon, Byung-yong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abuga(2)* and *Namjadapgara*, their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and to examine how the two works are linked to each other. *Nabuga(2)* is a work that attempts to convey a lesson by describing a lazy female character, describing the woman's negative behaviors in detail. However, *Namjadapgara* refutes criticism of women, while referring back to the contents and phrases in *Nabuga(2)*.

Namjadapgara responds to the criticism of women presented in *Nabuga(2)* in two main ways. The first is to discuss the fact that men should receive more criticism for the character and behavior of women singled out as problematic, and the second is to unveil instances where distortion or concealment has occurred in critiques directed towards women. Thus, *Namjadapgara* effectively refutes the criticism of women presented in *Nabuga(2)*, questioning the ethics of men, the subject of edification, and the truth of the instructional discourse.

Nabuga(2) and *Namjadapgara* are important works in the history of Siga (詩歌) and women's literature as they are attempts to reconstruct women's experiences and emotions from their perspective; they are also significant as works that counter the didactic discourses about women.

Key words : *Nabuga(2)*, *Namjadapgara*, *Gyenyega*, *Gyubang-Gasa*, *Jangtanga*, Responding Gasa, Counter-writing.